

安東金氏墓 出土 圓衫織物에 관한 연구

김혜영* · 조우현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織物을 文獻上으로 살펴보면 古代부터 高麗, 朝鮮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織物文化를 엿볼 수 있다. 특히 安東金氏 김수근 일가의 墳墓에서 발견된 4점의 圓衫은 소장자의 신원이 확실하며, 당시의 勢道家門으로서 士大夫家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 圓衫에 사용된 직물의 구체적인 고찰은 우리 민족의 과거 禮服文化의 生活相을 추론하여 볼 수 있는 기회로 研究의 가치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出土된 직물의 構造를 파악하여 직물이 갖는 特性을 이해하고, 文獻과의 連繫 考察로 衣服文化의 傳統性을 고려한 의복재료로서의 價値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織物에 사용된 織造와 紋樣을 조사 분류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로 현대 산업에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構築하고자 한다. 이에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圓衫에 사용된 직물로 길 소재로는 貞緞, 四合如意雲紋緞, 桃榴佛手紋段, 壽字弧盧蝠紋段, 菱花水仙紋紗, 桃榴佛手紋紗가 사용되었다. 색동의 소재는 수자호로박쥐문단과 貞緞에 이어 寶紋紗와 飛綾이 추가되었다. 한삼의 소재는 人花段, 貞緞, 桃榴佛手紋段, 桃榴佛手紋紗가 걸감으로 사용되었고 안감으로는 三八紬에 桃榴佛手紋段이 사용되었다. 다른 부위에서 보이는 소재로는 동정에 圓紋樣의 段이 보이고, 안감에서 寶紋紗와 순인, 寶紋弧盧圓紋段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組織에서 桃榴佛手紋段을 살펴보면 바닥은 8매 經縐子織에 무늬는 8매2뿔의 變則縐子織으로써 8매2뿔의 正縐子織에 組織點을 附加하여 더욱 堅固하게 직조되었다 朝鮮時代 後期の 段織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組織樣式이다. 綾織인 경우 飛綾으로 나타나고 한삼의 안감은 平織으로 직조되었다. 菱花水仙紋紗는 2

경 꼬임의 紗組織으로 무늬의 境界線은 浮織, 무늬 안은 平織과 浮織으로 짜여졌다

紋樣은 織造紋으로서 복숭아와 석류, 佛手紋樣이고 색동부분에는 寶紋으로 推定되는 紋段이 보이며, 다른 한 색동에는 先行研究에서 지적되지 않았지만 綾織의 飛綾紋樣이 나타난다. 菱花紋에 水仙을 사방 배치하여 사실적 무늬의 表現이 되어 있다. 안감의 段에서 보이는 紋樣은 魚, 日, 方勝紋 등이다. 壽字, 弧盧, 박쥐紋樣이 보이고, 人花段에서 牡丹으로 推定되는 꽃문양이 나타난다. 朝鮮時代 男子服飾에서 많이 나타나는 雲紋段이 안감으로 사용되어 걸감보다 안쪽의 紋樣이 화려하게 구성되었다.

現存하는 圓衫 중 宮中에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9개의 圓衫 織物을 고찰하면 걸부분에는 桃榴紋段, 桃榴佛手紋紗, 壽福字紋段, 七寶紋段, 蓮花唐草紋段, 貞緞, 雲寶紋段, 牡丹紋 등이 織造된 紋段이고 색동의 소재로 鳳凰 金箔, 雲寶織金段, 壽字金箔 등이 사용되었다. 安東金氏 圓衫의 織物도 桃榴佛手紋段, 壽字紋段, 七寶紋段, 雲紋緞등의 고급 絹織物로 이루어졌으며 색동의 素材 또한 織金으로 推定되는 素材가 사용되어졌으며 織造紋의 紋樣이 精巧하고 細密하여 宮中에서 하사된 織物로서의 추측도 가능하다. 또한 安東金氏 家門에 왕비가 3명이거나 배출한 사실에 의거하여 당시의 士大夫중 勢道家 當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동김씨묘 출토 직물의 우수성을 살려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豫想되며, 現代 産業에서 傳統文化商品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傳統 織物의 復原과 재발견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복식문화를 일깨워주며, 국제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21세기에 織物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高附加價値를 提示한다.